

사설

법장스님 취임 백일에 부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취임 100일이 지났다. 변화하는 종단, 원융화합의 종단 만들기라는 기치에 '코드'를 맞추고 종단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법장스님의 지난 100일은 상당히 실험적이었다. 개혁, 신뢰, 화합이라는 명제를 풀기위한 포석을 전개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단 화합의 상징인 멸빈자를 포함한 대사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이 부분에 있어 종정 스님과 원로회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위로부터 형성된 화합 의지가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행국은 앞으로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장스님은 정제된 종단의 틀을 과감히 해체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힘도 발휘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을 행정 일선에 전진 배치한 것과 환경운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열기의 리드, 복지 분야에 대한 현실인식과 불교적 개념 정립 등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가르침의 종교에 부합되는 행동들이다. 때문에 다소 실험적이었던 지난 100일이 각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종단이 보다 큰 틀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성과 위주의 정책 개발 보다는 종교 모두가 긍정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설정하고 실현해 내야 한다. 종단의 3대 사업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인 발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충언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치료' 안되는 동국대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이 하세월인 모양이다. 지난 5월 27일 병원 개원 문제로 소집되었던 재단 이사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다는 소식이다. 백여년에 가까운 학교 역사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이 대학 설립을 주도했던 수많은 선지식들의 여망이 병원 문제로 상처받을까 걱정이다. 재정적 문제가 병원의 개원을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 어쩌면 돈을 준비해 놓고 벌인 공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기획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 행정에 직간접으로 관계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구성원 각자의 이해 상충과 불화도 그 원인이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일차적 의견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전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 그래서 타

협과 이해가 필요하다. 병원의 개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부작용이 파생될 것 같다. 불교계 전체와 동국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며, 지역주민과 병원개원에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조계종과 전체 불교도들의 몫으로 돌아올 염려도 있다. 우선 학교 당국자 내지 재단의 관계자들은 병원이 하루 속히 개원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미스런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해보지도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 사부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 역시 불자의 도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세인: 유승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수신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원융화합·신뢰회복 토대 구축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일

이달 3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법장스님 집현부 출범이후 변화하는 종단의 모습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장스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에 오르면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종단 구성원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총무원장 선거 당시 '종단 개혁' 현장·원칙중심 행정·자주성 평가할만

할 것을 주문했다. 법장스님 스스로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내려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의 총무원 문화부장 발탁이나 대 정부 관계에 있어서의 자주성 확립도 평가 받을 만하다. 또 종회 계파나 문종 간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조계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총무원의 '분위기'를 만든 것도 총무원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종단 관계자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멸빈자 사면 문제를 비롯해 31대 종회과제의 실천, 계파정치 배제 소신의 지속, 종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시스템 정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근기·단계별 수행법 제시돼야”
 혜원스님, 작년 안거참여 비구니스님 조사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은 5월 24일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비구니의 수행체계와 간화선'을 통해 "선방 스님의 89.8%는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단계별로 적합한 수행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계종 소속 비구니 선원에서 하안거와 동안거에 참가한 비구니 스님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른 수행법이 유행처럼 번

여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4%는 '체계적으로 수행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69.8%가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수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행체계를 어떤 원칙에서 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화선을 최고 수행법으로 삼고 다른 수행법을 보조수행법으로 삼을 수 있는 체계로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으나 '간화선과 관계없이 모든 수행법을 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31.7%에 달했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불교병원 내년봄개원 난망

동국대 불교병원 정관개정을 다룬 예정이던 동국학원 이사회가 5월 27일 성원미달로 연기됨에 따라 일산병원의 개원이 당초 예정했던 내년 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13명의 이사 중 6명만 참석,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질 경우 개원추진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사회가 미뤄짐에 따라 병원개원일

정의 차질이 예상되며, 2002년도 회계감사 결산심의 안건도 처리되지 못해 교육부 보고도 못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12일 병원 개원추진본부(본부장 홍기삼 총장)를 발족했다. 추진본부는 정관개정이 통과될 경우 조직을 확충한 뒤 병원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개원 후 수익전망까지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업체를 6월 초 선정할 계획이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조명 금강대, 11일 세미나 개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를 조명하고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11일 논산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금강대 개교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상월원각 대조사와 천태종'과 '21세기와 불교'.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태종 종학과 상월원각 대조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이봉춘 교수와 동국대 회기표 강사가 '천태종 중창의

역사적 의의'와 '상월원각 대조사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사찰방범·방화시설 표준지침 마련 통보

지난달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생한 국보 강탈 사건이 방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 방범방화시스템 설치 표준지침'을 마련, 5월 26일 350여 문화재 보유 사찰에 통보했다. 표준지침은 화상감지시설과 침입자 감지장치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의 최소 사양과 요령 등을 담은 일종의 '시설 설치 기준'이다. 표준지침 마련은 사찰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미설치 문화재 보유사찰 300여 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현대' 민평 심 민섭

병원 열기 삼보일배 할까요?

정신과 육체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비의 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특별 강좌

요가의 효능 및 방법
 바른자세와 호흡을 통하여 폐와 내장기관을 청소한 뒤 해맑은 운동 12가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개강일시 및 장소
 ▶ 서울: 6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개월 간)
 ▶ 기흥: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6개월 간)

1. 물구나무서기(Sirshasan) 기역력, 사고력, 집중력이 강화되고 시력, 청력이 좋아지며 신경이 튼튼해진다.
2. 척추골세우기(Sarangasan) 갑상선, 심장혈압, 비만에 좋고 목과 가슴부위가 튼튼해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료된다.
3. 쟁기포즈(Halasan) 등, 어깨, 팔, 근육이 강화되고 소화가 잘되며 변비, 불면증이 없어진다.
4. 물고기자세(Matsyasana)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굵은 어깨가 펴지고 중추신경이 발달하여 충치가 예방된다.
5. 앞으로 굽히기(Paschimothanasana) 비만을 치료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뼈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
6. 코브라(Bhujangasana)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요통 류마치스를 치료하며 체온조절이 잘 되 자궁이 튼튼해진다.
7. 메뚜기운동(Salabhasana) 장, 위장, 간장 등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 등, 팔을 유연하게 한다.
8. 활(Dhanurasana) 만성변비, 소화불량, 간부력에 좋고 굳은 뼈를 펴준다.
9. 척추번비틀기(Ardha-matsenbrasan) 허벅지가 펴지고 혈액공급이 원활해지며 특히 관절에 좋다.
10. 까마귀포즈(Kakasan) 팔과 목 어깨를 튼튼하게 하고 손가락, 팔목, 근육이 늘어나 무기력증이 없어진다.
11. 손과 발포즈(Padahasthasana) 허벅지 뼈가 부드러워지고 체지방이 없어지며 두뇌에 혈액공급이 잘 된다.
12. 삼각형(Thikonasana) 윗팔꿈치, 골절건강에 좋으며 척추신경과 내장기관이 좋아진다.

세계전통요가실천본부 · 세계젠요가학교

본 부: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13번지 / 전화 031) 375-0778
 서울교육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02) 969-2410